“사회 소수자 목소리 외면 말아달라”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이호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대표


김태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유가족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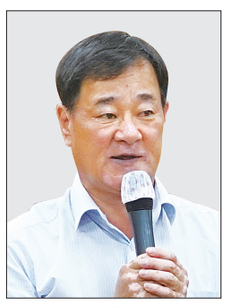

이준화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대표


최현환
한국옵티칼노조 지회장


김량화
동작구 아트센터 전세사기 피해자 대표


정찬미
전국요양보호사협회장


우다야 라이
네팔출신 이주노조 위원장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표

사노위, 6월 22일 봉은사서 간담회
10개 분야 사회적 약자들 목소리 내
불교 연대 감사…“평등 사회 함께”
진우 스님 “목소리 대변 노력하겠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스님, 이하 사노위)가 6월 22일 서울 봉은사에서 개최한 ‘평등세상을 위한 사회적 약자 초청법회 및 간담회’는 가감없는 소통의 법석이었다.

법사로 나선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사회 각계 소외되고 차별받는 이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대화하며 “사회 곳곳의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굳건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제주항공과 화성 아리셀 등 산재로 인한 유가족, 돌봄 감정 노동자, 성소수자, 장애인 가족, 홈리스, 전세 사기 등 10여개 분야를 대표한 이들은 절절한 사연으로 통해 “고통받는 이들을 향해 귀 기울이고 동행해 줄 것”을 부탁했다.

간담회는 모든 생명은 존귀하고 평등하다는 부처님 가르침이 참석자 모두에게 전해지는 시간이었다. 간담회에 모인 각계 단체들의 대표들은 자유발언을 통해 막막한 순간에 연대의 손길을 내밀어 준 사노위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또 불교계의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활동과 지지에 대한 큰 기대감도 드러냈다.

이호림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동대표는 “불교는 성소수자들에게는 가장 든든한 종교”라며 고마움을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 사회가 충분히 관용적이고 포용적지 않음에 안타까움을 표한 이 대표는 “우리는 밝히려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 하고, 숨기고 싶은 않은 것”이라면서 “(불교계가)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때까지 사회적 목소리를 계속 내주길 바란다. 모두가 존엄하고 평등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위해 함께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태윤 화성 아리셀 유가족 대표는 참사 후 힘든 싸움 중 투쟁 현장에 유가족과 함께 해준 사회노동위 스님들에게 “아픔 속에서도 희망을 느끼고 위안을 받았다”면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김 대표는 “아리셀은 당시 화를 당한 고인 23명뿐 아니라 가족 삶도 멈추게 만든 살인자”라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명확한 진상 규명이다. 이는 재발방지를 넘어 여기 있는 분들의 안녕과도 관련된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준화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대표는 조계종에서 봉행한 49재에 깊은 감사를 전하고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으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가 이뤄지는데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2024년 12월 29일 사고로 159명이 사망하며 현재 진상규명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아직도 많은 유가족이 무안공항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문제점을 조사했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덮고 간다면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예비 유가족이 되는 것”이라고 일침했다.

최현환 한국옵티칼 노조지회장은 구미 공장 옥상에서 고공투쟁 중인 옵티컬 노동자의 목소리가 사회에 전달될 수 있도록 총무원장 스님이 직접 현장에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 지회장은 “우리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고 약해 고공에서 소리쳐야 듣는 사람이 생긴다”고 고공 농성의 이유를 설명하고 “노동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한국 법체제 속에 인간 존엄과 인권을 지키기 위한 외로운 싸움에 불교계도 함께 해달라”고 청했다.

김량화 동작구 아트센터 전세사기 피해자 대표는 청년인구의 80% 이상이 임대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청년들의 삶에 힘이 돼 줄 것을 호소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약 3만명 중 대부분이 청년층임을 밝힌 김 대표는 “피해자 지원법이 제정됐다고 하지만 실효성이 떨어져 결국 피해자들이 대출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지고 있다”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정부가 청년들의 인간다운 삶에 외면하지 않도록 조계종에서도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정찬미 전국요양보호사협회장은 “열악한 근무여건과 정서적 고통으로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 요양보호사들이 조계종의 지원으로 템플스테이에 참여하고 큰 위로를 받았다”면서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달라”고 말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이주민 신분과 처우 개선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우다야 라이 위원장은 “이주민 250만, 이주노동자 150만 시대에 농어촌 및 도심에서 이주민 없이 생산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노동자들은 열악한 근무 조건에서 강제 노동을 하고 있다”면서 “이주노동자들의 역할을 인지하고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법체제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표는 “발달장애 부모들의 가장 큰 걱정은 내가 죽은 뒤 자식이 어떻게 살아갈 지에 대한 것”이라며 “부모가 없는 발달장애인들이 사회적 보호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 복지 체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다양한 이야기를 경청한 진우 스님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다양한 직업들이 새로 생겨나지만 불안정한 노동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우리사회가 자본, 이윤의 확대보다는 공동체가 건강하게 더불어 살아가도록 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체의 가치를 강조한 진우 스님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사회 공동체가 발전하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노력하는 모습들에 감사하다”면서 “종교, 특히 불교는 공동체 가치를 더 알려 나가고 어려운 조건에 있는 사람들과 더 소통하고 함께 연대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의 약속도 잊지 않았다. 진우 스님은 “13년 동안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참사현장을 비롯 다양하게 연대활동을 해왔다”면서 “총무원장으로서 현 위치에서 사회 각계 지도층에게 우리 사회 소수자들을 위한 목소리를 대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군승 58기, 임관을 신고합니다!”

신임 군승 12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예방

최전방 부대 배치 군승 다수
진우 스님 선명상 활용 당부
“군승, 불교중흥 초석” 격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6월 23일 조계사에서 새로 임관하는 군승 58기의 임관 신고를 받았다.

“신고합니다! 군승 58기 12명은 2025년 7월 1일부로 군승 임관을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군포교 일선에서 장병들에게 불법(佛法)을 전하는 신임 군승들의 우렁찬 임관 신고가 울려퍼졌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6월 23일 조계사 전통문화관 담소에서 새로 임관하는 군승 58기의 임관 신고를 받았다.

이날 진우 스님에게 신고한 군승 58기는 총 12명(육군 3명·해군 4명·공군 5명)으로 이들은 육군 학생군사학교에 입교해 군종장교가 되기 위한 12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군승으로서 임관하게 됐다.

이날 진우 스님은 “군승들이야말로 한국 불교 중흥의 초석이 될 존재”라며 강한 사명감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스님은 “젊은 세대가 아직도 불교를 잘 모르고 있다. 이로 인해 사회 전반이 각박해지고 있으며, 청년들의 정체성 혼란으로 이어진다”고 우려하며 “청년들이 불교를 제대로 알게 되면 자비심이 자라고,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며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 중심에 있는 군 장병들에게 불교를 가르치는 일은 곧 사회와 국가를 위한 핵심적 과업”이라고 강조했다.

군종교구장 법원 스님은 신임 군승들의 이력을 소개하며 “올해에는 최전방 부대로 배치된 군승들이 많다”고 전했다.

“다 잘 해내리라고 믿는다”고 격려한 진우 스님은 군포교에서 선명상의 활용을 강조했다. 진우 스님은 “‘우선멈춤’과 같은 선명상 수행법은 마음을 여유 있게 해 부대 내 인사사고 예방에도 효과가 클 것”이라며 “군승들이 선명상을 잘 익혀 군 장병들에게 전법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게 한다면 그것이 곧 불교의 중흥과 사회 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격려했다

이에 대해 법원 스님은 “현재 군 법당 250여 곳에는 상주 법사가 없기 때문에 선명상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법회에 활용하도록 독려하고 있다”며 “특히 파병 부대에서는 간부들이 선명상 프로그램을 이용해 법회를 진행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승 안거 때 선명상 지도법사들을 초청해 활용법을 교육하겠다”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천안에 진각종 가르침 전하겠다”

진각종, 천안심인당 헌공불사 봉행

“하늘의 눈이 열리니 하늘 아래 온 세상이 편안한 날이다.”

진각종(통리원장 능원 정사)은 6월 24일 천안심인당(주교 원담 정사) 신축헌공불사를 봉행했다. 천안지역 교화의 새 장을 열게 될 천안심인당은 연면적 1136.64㎡에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로 신축됐다.

통리원장 능원 정사는 기념사를 통해 “천안심인당 헌공불사를 봉행하는 뜻깊은 날 우리들의 마음도 환희심으로 가득하다”면서 “천안심인당 이전 신축은 신교도들의 수행공간을 보다 쾌적하게 함은 물론 지역의 특성과 환경에 부응하는 새 도량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총무부장 법운 정사는 강도발원을 통해 “천안심인당이 나날이 발전하여 종단과 대전교구를 융성케 하는 초석이 되고 교화 만당 되기를 서원한다”면서 “진각행자 모두 부지런히 보살행을 닦아 세상 모두가 성불하는 대서원을 세워 정진할 것을 다짐한다”고 했다.



진각종 총인 덕일 대종사, 통리원장 능원 정사, 교육원장 정법 정사 등이 천안심인당 헌공불사 및 본존이운 가지불사에 앞서 테이프 커팅식을 갖고 있다.

천안심인당은 진기 16년인 1962년 대전에서 교화의 문을 열었던 사천왕심인당의 맥을 이어 진기 68년인 2014년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통정10로 68(신방동 1879)에서 천안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교화를 담당하다가 10여 년 만에 현재의 자리로 옮기게 됐다.

헌공불사에 앞서 금강아사리 총인 덕일 대종사와 행법아사리 통리원장 능원 정사, 교법아사리 교육원장 정법 정사 등이 본존이운가지불사를 봉행했다.

신중일 기자

다목적 원톱 시스템 이란?

다목적 염불법당시스템은 전기 연결없이 간단하게 들고 다니며 사용함으로 법당 50평 사용 및 산신각, 소각장, 야단법석, 방생용, USB사용과 염불소리 연출, 설법, 성우소리 연출, 편집, 녹음기능 및 전기연결로는 법당서 계속사용, 전기없이 야외에서는 9시간 사용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무선 2 / 유선 2 /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색소폰 무선전용마이크)
실내 50평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정가(스탠드 포함) 98만원

방송장비
KBS 및 각 방송사 방송기재 납품업체
마이크 공장직영, Multi-Cube
각종 방송시설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108
TEL : (055) 343-1191
H·P : 010-9471-2026
010-7740-2026
명품Sound 명품사운드 대표 박 공



가정에서도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연하게 여겼던 사찰에서의 수행이 어려워진 요즘,
꼭 어딘가에 가지 않더라도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불자분들의 수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가정용 수행 용품을 붓다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불교서적 | 불교용품 | 명상음반
www.buddhabook.co.kr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돈암동일하이빌 B1 ㈜온주사
Tel. 02-953-7181
법보시용 대량 주문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